

분산과 분신의 축조술

김성환展 8. 30~11. 30 아트선재센터
권병준展 10. 9~10 LIG아트홀

바닥에 쓰러진 소년과 그 위로 던져지는 초록빛 수박. 피처럼 붉은 파편들로부터 퍼져 나가는 달콤하고 비릿한 냄새. 위태로울 만큼 연약하고 그렇기에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비극이라 할 김성환의 퍼포먼스 〈수박의 아들들〉은 개인전 〈늘 거울 생활〉과 그 공간에서 잉태된 아이(들)이다. 이 퍼포먼스가 단순히 그 장소에서 착상(着想)되었음을 넘어, 장소의 능동성을 통해 지형과 특성으로부터 착상(着床)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전시장의 아이들’¹⁾을 살피기 위해서는 수정의 모체인 전시장과 그 작품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면 반듯한 균형 감각에 균열을 일으키는 의외의 각도의 거울과 기둥 구조물이 드러난다. 이 비스듬하게 어긋난 공간에서 관객은 동선을 머뭇거리거나 방향을 잃고 헤매다 갑자기 거울에 맞닥뜨리기 일쑤다. 감각의 혼란은 공간의 구조 때문만은 아니다. 대개의 영상 전시가 관객이 최대한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공간을 어둠 속에 몰아넣는다면, 이 전시에서 공간 구조물은 영상만큼이나 관람의 대상이 되도록, 혹은 영상 작품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도록 은은한 빛과 색으로 감싸여 있다. 어떤 의미에서 흡사 고농도 빛의 영상으로부터 저농도 전시 공간으로 빛의 입자가 ‘확산’된 것(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혹은 스크린을 일종의 프리즘 삼아 빛이 ‘분산’된 결과(의 재현으)로서의 전시 공간.

그림자의 얼룩들

그 스스로 현실의 거울상이라 할 영상 매체와, 실제로 거울을 품고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그 둘이 서로 맺고 있는 ‘거울 같은’ 관계. 〈늘 거울 생활〉전반을 휘감고 있는 이러한 중첩과 분열의 교차는 김성환의 영상 작업과 퍼포먼스 작업 간의 관계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²⁾ 〈수박의 아들들〉에서 전시장 곳곳을 오가며 종종 복수(複數)의 장소에서 동시에 출몰하는 퍼포머와 빛과 사운드는 각기 다른 굴절률에 따라 스크린-프리즘으로부터 분산되어 나온 스펙트럼과도 같다. 때로 그것은 환청처럼 들려오는 사운드가 되고 때로는 청아한 소년들의 합창이 되며 때로는 불길한 그림자극이 되면서 씬 없이 그 양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는 동안 관객을 360도 감싸 안은 무대는 불규칙적으로 늘려졌다가 잘게 쪼개지기를 반복하며 공간을 확장, 분산시킨다. 그것은 하나의 무대라기보다는 이미 영상의 확장으로서의 장소(들)이고, 공간의 그림자로서의 무대(들)이며, 전시의 분광(分光)과도 같은 퍼포먼스(들)이다.

복수의 공간과 복수의 매체. 이 복수의 중요성은 〈템퍼 클레이〉의 나선형 계단 위 아이들처럼 〈수박의 아들들〉에서도 쌍둥이 혹은 도플갱어 같은 존재로서 극화된다. 이 일련의 분신들은 유사성의 중첩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첩될수록 도리어 공기에 휘발될 듯 희박해진다. 소년들은 허물어지듯 차례로 쓰러지며, 작은 촛불의 흔들림에도 사그라진다. 그들은 유명들이고 그렇게 공간을 배회한다. 애초 존재 목적이 증발이기라든 한 양 하나의 양태로부터 다른 양태로 명명한다. 사라질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서의 퍼포먼스. 생각해 보면 스펙트럼의 프랑스어에 해당하는 말 ‘spectre’가 동시에 ‘유령’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무언가의 그림자가 되기로 할 때, 그것은 비가시적 광선으로 감춰져 있던 찬연한 색채를 눈앞에 드러내게 된다.

빛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모든 영상 작가에게 핵심적이겠지만, 가령 전시장 안에서도 유독 홀리듯 스스로를 감추고 유혹하듯 자신을 드러내는 〈마나하타스 댄스〉에서 아스라히 포착되는 빛의 파장들이랄지, 혹은 〈템퍼 클레이〉에서 흑백으로부터 보랏빛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장엄한 연결고리 등은 빛의 근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하다.³⁾ 〈수박의 아들들〉에 이르면 퍼포머의 두 손 안에서 일렁이며 빛나는 그릇은

김성환 〈수박의 아들들〉 퍼포먼스 2014_김성환의 작업 세계를 집약적으로 소개한 개인전 〈늘 거울 생활〉과 연계해 선보인 작업으로 실험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 전시장을 무대로 펼쳐졌다.

1) 〈수박의 아들들〉에 퍼포머로 참여한 소년들은 아트선재센터 직원의 자녀들이기도 하다.
2) 김성환은 자신에게 퍼포먼스란 비디오 작업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실체로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3) 물론 빛과 연결되는 불의 모티프도 함께 되짚어 봐야 한다. 〈마나하타스 댄스〉는 1911년 뉴욕 화재 사건에서 출발하며, 〈템퍼 클레이〉에서 소년의 손끝에서 휘몰아치고 소녀의 얼굴에서 타오르는 불은 욕망과 좌절과 분노의 비극을 상징한다.





권병준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 퍼포먼스 2014_권병준이 지난 10여 년간 선보였던 실험적인 작업을 집대성한 공연으로 무대 장치, 영상, 홀로그램, 빛과 소리가 만나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다. 권병준을 비롯해 고지연, 권병준, 김활성, 배민경, 윤사비, 윤수희, 이은상, 적극, 최태현 등이 공연에 참여했다.



우주로 향한다. 사실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분광학 자체가 우주의 원리를 밝혀 내고 이를 손바닥 안에 펼쳐 내고자 한 천문학의 방법론이 아니던가.

<수박의 아들들>에 협력 음악가로 참여한 권병준의 공연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은 흥미롭게도 <수박의 아들들>과 엇비슷한 그림자로 얼룩져 있다. 어떤 의미로 두 작품은 조각난 거울에 비친 분열된 이미지들이며, 분산 기법과 분신술로 서로를 저 멀리로부터 암묵적으로 호명하는 우주의 미아들이다.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의 무대는 <수박의 아들들>의 공간과는 또 다른 식으로 응축과 확장을 일으킨다. 장방향 무대에서 탈피하여 일종의 계단처럼 서로 다른 높낮이로 분열된 판들은 기존 공연장의 원근법적 세계를 무너뜨리며 퍼포먼스를 저기 ‘또 다른 시공간(들)’로 확장시킨다.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중앙에 자리 잡은 스크린이다. <수박의 아들들>에 등장한 일련의 스크린-상징물들이 실존적으로 불안정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의 스크린은 물리적으로 기화되고 마는 수증기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권병준이 장대 끝에 매달린 마이크로 이 수증기 스크린, 말하자면 액체로부터 기체로의 변환을 사운드로 담는다. 이윽고 그는 마치 주술사처럼 긴 지팡이 하나에 의존한 채 아슬아슬 외줄 타기를 하는데, 그 외줄 혹은 외다리 주변으로 모락모락 피어나는 수증기 때문에 흡사 달나라로 향하는 텔리에스의 로켓처럼 보인다. 그리고 보니 왼쪽 무대에는 6개의 둥근 히터들이 일군의 태양처럼 맹렬하게 빛과 열을 내뿜으며 회전하고 있다.

이처럼 <또 다른 달 또 다른 생>은 뮤지션이자 엔지니어로서의 권병준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사운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우주를 향해하는 오디세이라 할 수 있다. 가야금과 기타 같은 전통 악기로부터 하이브리드 피아노까지 다양한 차원의 현악기가 저마다의 사운드에 의해 막막한 우주로 향하는 방법과 태도를 설파하며, 마찬가지로 무대 왼편 사선으로 내리뻗은 6개의 로프는 망망대해에 나선 배의 돛줄로서의 악기이다. 사실 권병준을 비롯한 이악의 퍼포머들이 각각의 무대에서 각각의 악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순차적 방식은 자칫 사운드 간에 돌출된 간극을 일으키며 개별 퍼포먼스의 나열에 그칠 위험을 안고 있다. 구체적 서사와 캐릭터의 부재는 결코 문제가 아니지만, 가령 <수박의 아들들>의 다종다양한 퍼포먼스를 섬세한 빛의 스펙트럼으로 묶어 내는 어떤 근원적 정서와 세계관(여기에 김성환과 공동으로, 그러나 또한 독립적으로 사운드를 담당하는 디그레고리오의 역할도 덧붙여)에 해당될 것은 무엇인가. 혹시 악기와

테크놀로지가 수단의 차원을 넘어 각각의 것들 간의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디세이’에서 ‘일리아스’로

이에 대한 해독제는 역설적이게도 다시금 악기와 테크놀로지에의 집중, 엄밀히는 이를 다루는 권병준의 태도에서 발견된다. 단적으로 그가 채택한 테크놀로지의 시제는, 흔히 우주에 결부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의 모사)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탈한다. 도리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과거가 상상했을 근미래에 기대는 불편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그의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주술성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가령 그네를 타듯 허공을 가로지르는 홍사초롱 귀신은 어떻게 지극히 단순한 사물이 약간의 기술 변조만으로도 단숨에 우주의 차원에 이르는가를 보여 준다.

홍사초롱 유령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는 동안 수증기 스크린에는 마치 악령에 홀린 듯 일그러진 권병준의 얼굴이 어리기 시작한다. 섬뜩한 악당에서 만화 캐릭터로, 아이의 얼굴에서 노인의 얼굴로, 흡사 변검술에 테크놀로지의 혼령이라도 씌운 듯 씬 없이 변화하는 권병준의 얼굴이 무대 오른편 암흑 속에 홀연히 떠오르면, 무대 중앙의 수증기 스크린은 이 얼굴을 한층 더 일그러뜨려서 거의 흘러내릴 만큼 흐물흐물한 얼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 변환과 전환, 분열과 증식 속에서 일견 세상의 모든 얼굴이 권병준으로 수렴할 듯 보이지만, 공연이 지날수록 결국 권병준의 얼굴을 밀어 내는 ‘또 다른 얼굴(들)’로의 지속적 이동이야말로 분신술의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권병준의 우주 향해 ‘오디세이’로 시작된 이 공연은 분신들의 이탈 궤도를 따라가는 ‘일리아스’로 종결된다.

/ 방 혜 진